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경제 부흥 모멘텀 확보

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김 지사,尹대통령에 제안한 정책 '결실'

전북도 김관영 도지사의 주요 국정 사업들이 속속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최초로 제안했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전북도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역경제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북이 최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광역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취임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지방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직접 건의하였고,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첫 단추를 끼웠다.

전북도는 또 전북이 주도한 국가의 제(아젠다, agenda)인 만큼 그동안 도내 인구감소지역 시·군 사업참여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 한정된 비자 쿼터, 지역별 산업군 현황 등을 고려해 정읍시·남원시·김제시 3개 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인력 지원을 위한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요 및 외국인 유학생 협력을 조사하는 등 발 빠르게 공모사업에 대비했다.

또한, 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산·학·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첫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산업·대학·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기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인재를 지역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분야, 스마트팜 분야, 보건 의료 분야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도는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 의료 분야 등 3개 업종을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처를 연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북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김관영 도지사가 6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재가 본국 또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층 상담, 지역생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밖에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부여받은 외국인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향후 이들이 지역민과 함께 화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등 '외국인주민 전북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특화형 비자 전북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사업은 우리가 주도한 아젠다의 일환인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사업으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립 호남권 청소년상담센터 유치, 군산항 재조성설로 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이어 전북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4개가 만들어졌다"며 "산학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은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간 취업 및 거주를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며, "이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에 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용의약품 평가 전문기관 익산서 '첫 삽'... 전국 최초

내년 11월 준공 예정 산업 육성에 큰 역할 기대

전국 최초로 동물용의약품 평가 전문 기관이 익산 인수공통연구소부지에 첫 삽을 떴다.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6일 익산에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 김중훈 전북도 정부부지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현을 익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평가센터는 동물용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효능·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 시험 기관이며, 총 사업비 250억, 연면적 7,230㎡(지하층, 지상층) 규모로 2023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다.

최근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지속 성



6일 익산에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장(내수 6.8%, 수출 9.6%) 하고 있고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시 필요한 효능·안전성 평가를 국가인증 기관에서만 실시하게 돼 있으나 축종별 동물시험시설을 갖춘 평가기관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또,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지난해 기준 1조3,000억으로, 연평균 6.8%씩 증가하고 있고 수출시장도 9.6%씩 지속 성장하고 있다.

개발 품질 및 생산기술 향상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산업의 체질개선 및 산업화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동물용의약품을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 또는 기존 동물용의약품 기업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 평가전문 시험 기관으로, 내수시장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기자·익산=이재춘기자

'생명-환경-소재'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전북대 첨단과학캠퍼스 정읍연구개발특구서 개교

2024년 완공 예정 제약산업 인력양성센터 등과 융합

전북대학교 첨단과학캠퍼스가 6일 정읍연구개발특구에서 김동원 총장과 본부 보좌자, 지자체장 및 지역 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가졌다.

첨단과학캠퍼스는 9,917㎡부지에 건축면적 297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강의실과 실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연구관과 4층 규모의 기합관 그리고 46실 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첨단과학캠퍼스는 지난해 2월 교육부로부터 설치·운영 인가를 받은 후 대학원 과정의 바이오융합과학과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지난 2017년 정읍산학연협력지원센터를 준공,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이전한 방사선·바이오생명 특화 국제연구원과 기업 맞춤형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대학원 과정을 준비해왔다.

전북대는 첨단과학캠퍼스는 생명(BT)과 환경(ET), 소재(NT)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과학 교육의 산실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읍시는 그간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원



전북대학교 첨단과학캠퍼스가 6일 정읍연구개발특구에서 김동원 총장과 본부 보좌자, 지자체장 및 지역 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가졌다.

연구원 바이오소재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영장류시험본부 등 정부 출연 연구소를 유치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성장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환경을 구축해왔으나, 이를 이끌어 갈 바이오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 체계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번 전북대 첨단과학캠퍼스 설립은 연구와 교육을 연계한 지역 특화 핵심연구인력 배출과 융·복합 연구개발을 견인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북대는 현재 이곳에 대학원 과정의 바이오융합과학과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융합공학 전공도 신설해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정부 출연 연구소 연계한 새로운 학연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근에 농축산융합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가 운영 중이고, 바로 옆 부지에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도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전북대는 이 기관들과의 융합을 통해 이 곳을 제약과 미생물 미니 클러스터로도 육성할 방침이다.

김동원 총장은 "첨단과학캠퍼스는 지역 내 국가 연구기관들과 연계해 '생명-환경-소재' 분야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에 연간 1,200명의 제약산업 인력을 양성할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가 구축되면 정읍시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기자

2022 IMSIL N CHEESE FESTIVAL
임실N치즈축제
10.7(금) ~ 10(월)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마을